도깨비 Episode\_10

어떻게 알았냐니까요? 왜 아냐니까?

김써니씨 라고 했는데.. 아 많이 추우시죠? 제가 금방 코트..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무언가 잘못 되었어. 아마 당신부터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대체.. 왜..

뭐가? 괜찮아요? 안 그래도 하얀 얼굴 더 하얘졌는데?

니가 본 이 여인은 누군데?

내가 아는 이 여인은 내 누이야.

★

아주 뚫어지겠네, 뚫어지겠어.

지은탁

갑자기 지긋하게 봐도 늦었거든요?

너네 사장님 어떤 분이시니?

아, 나 이 질문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저승 아저씨한테? 그 다음 질문은 뭘 해주면 좋아하니? 인 거 같은데? 딱 보면 몰라요? 예쁜 분이잖아요. 엄청 예쁜 분.

나는 예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나 이 말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

진짜 왜 그래요? 왜, 뭔데? 아, 뭐 여자 손 처음 잡아보는 것도 아닐.. 하아, 사이즈 딱 나왔네, 내가. 전화번호도 없다 생기고, 진짜 이름도 안 알려주고 손 좀 잡았다고 막 정색하고, 유부남이에요, 혹시?

아니요.

그럼 나머지 하나네. 맨날 새까만 옷에 어쩐지 얼굴도 너무 하얗다 했어. 국정원이에요, 혹시?

아니요.

그럼 저승사잔가? 안 웃네? 농담인데. 일단 유부남, 국정원 아니면 됐어요. 들어가요, 추워. 어휴.

그러는 써니 씨는 누구십니까..

술 드시게요?

어, 기분도 딱 치맥이야. 너도 음료 한 잔 해. 후우. 거기 오라버니, 나 왜 자꾸 봐요, 아까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랑 동명이라 신기해서요. 진짜 이름이 김선이에요? 이름에 한자 뭐 써요?

한자 안 쓰고 영어 써요. S U N N Y.

혹시 나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며칠 전에 봤잖아요, 전의 가게 앞에서.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자꾸 나한테 오라버니라고 합니까?

그럼 이거, 저거, 야, 너 할 걸 그랬나?

이 자랑은 정확히 무슨 사이입니까? 이 자가 뭔진 알고 만나시는지.

음, 반지 주고 받은 사이?

그 반지가 그런 뜻이었어요?

알바생, 질문 잘했어. 이 반지 무슨 뜻이었어요?

반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반지 좀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전에 봤던 카페, 내일 오후 1시.

이건 또 무슨 뜻일까?

★

사실 하나. 족자 속 여인과 써니 씨의 전생은 같은 얼굴이다. 사실 둘. 족자 속 여인은

내가 아는 이 여인은 내 누이야.

김신의 누이이다. 그럼 질문, 써니 씨는 김신 누이의 환생인가? 아직은 글쎄. 다시, 사실 하나. 나는 족자 속 여인을 처음 본 순간 울었다. 사실 둘. 나는 써니 씨를 처음 본 순간 울었다. 그럼 질문. 나는 왜 울었지? 내 감정의 정체는 뭐지? 그 둘의 역사와 내 지워진 기억이 관련이 있는 걸까? 이것도 글쎄.

★

닭 한 마리에 얼마냐, 아주 가게를 통째로 사니 마니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닭 값 저승 아저씨가 냈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경황이 없어서..

아, 뭔 경황이 그렇게 내내 없었을까? 아니, 돈도 안 낼 거면서 우리 사장님이랑 저승 아저씨랑 무슨 사인지는 왜 궁금해? 왜, 나한테 보이는 거 다 말해봐, 막 이러지? 하여간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인간이든, 도깨비든, 저승사자든.

니가 생각하는 그런 장르 아니야.

그런 장르 맞던데? 나한테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아 혹시 이 날만을 기다린 건가? 그래서 나 그 닭 집에 붙인 건가? 우리 사장님 예뻐서?

이제 와 말이지만 내가 무슨 수로 알바를 붙여.

건 또 뭔 소리예요?

난 그저 범위를 좁혀줬을 뿐이야. 닭 집이라고 범위를 좁혀주면, 그거에 올인할 테고, 붙는다고 하면 자신감 있게 임할 테고 그걸 본 누군가는 뽑을테고.

하, 무슨 그런 개뻥을!

뭔 뻥?

그럼 나 소원 주 개가 그냥 남았네, 알바랑 남친.

너 왜 자꾸 남친 물고 늘어져? 태희인가 뭐시기인가 다리몽댕이를 확 부러뜨려서 확인 시켜줘? 내가 네 남친인지 아닌지? 뭐 하나 부러뜨려 놔야 네가 아, 내 남친이 성격 괴팍한 도깨비였구나 하지? 아주! 에이.

아, 왜 자기가 화를 내. 아, 뭐요. 나 별 말 안했어요.

아까 알바하는 거 보니까 마음 아프더라. 난 제대로 처음 봤잖아. 잘 자.

★

잘 지내고 있느냐, 오라비는 비로소 잘 지내는 것 같다.

★

반지는.. 반지는 제가 잠깐 맡았다 다시..

이유 말해주면요.

조사할 게 있어서요. 조사 성격상 자세한 건 좀.. 근데 써니 씨는 그 때 왜 하필 이 반지를 집으셨나요?

딱 내 거 같아서요.

혹시 반지 껴보셨을 때 뭔가 느껴지신 거 없나요?

느껴졌죠, 딱. 이 남자 만나려고 집었구나. 첫눈에 나 보고 우는 남자, 양보도 않는 남자, 만남은 짧고 기다림은 긴 남자.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반지를 줬다 뺏을 줄은 몰랐죠.

감사합니다. 곧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조사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성격도 만만치 않으니까 조사 끝나면 내용 공유해요. 나도 그 반지에 지분 있으니까. 갈게요. 오후 장사해야 돼요.

★

몰라서 그러는 거 같아 하는 말인데, 그 식단에 그 드레싱은 좀 아니지 않냐?

어.

정신 차리고 점심 차려. 반지 뺏는 거 실패했냐?

잠깐 빌린 거야.

그걸 뺏었다고 하는 거야. 준 걸 왜 빌려? 어제 보니 손도 잡던데, 왜 전생에 원수 진 일이라도 봤어?

떠 보지 마.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고 봤어도 잎 밖으로 낼 수 없어. 규정상.

아주 양심 사자 나셨네, 그런 분이 저승사자를 숨기고 인간을 만나냐?

넌 같은 처지에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뭐가 같은 처지야, 난 운명적 사랑이고, 두부에 케찹 그만 뿌리고.

어.

내 누이도 김선이었어, 이름이. 그래서 좀 싱숭생숭했어, 밤새.

환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며.

다른 얼굴로 태어났으면 알아볼 방도가 없지. 인간의 길흉화복이 보이는 게 전부라.

만약에 누이가 환생했고, 마침내 만났어.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돼? 어차피 니 누이는 전생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을 텐데.

그냥. 뭐 이 생에선 평안한지, 무병장수(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다)한지, 사랑은 받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지 뭐. 이뻤는데, 우리 못난이.

좀 더 해봐. 말 나온 김에.

뭘?

네 얘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한 번 말했잖아. 장군이었다고. 고려의 무신이었어.

전쟁터에서 죽은 거야?

아니, 내가 지키던 주군의 칼날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나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는 얘기라.. 소금 좀.

어.

한 아이가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 황제였던 아비는 이미 죽고. 어미의 신분은 미천(하찮고, 천하다)했고, 그마저 병들어 죽고. 아버지 뻘의 큰형이 황제였지. 황실에 그 아이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 오직 국자감(고려시대 국가 교육기관)의 박사이자 스승인 박중헌 밖에.. 박중헌을 만나고 아이의 주변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황위를 이을 조카가 죽고, 의문을 품은 대군들도 죽고. 마침내 큰 형인 황제도 죽어. 모두 왕가의 유전으로 인한 병사였으나 훗날 아이는 알게 돼. 그들 모두가 독살되었다는 것을.

황자도, 대군들도 비명에 가니 이제 여(왕 이름) 하나 남았다. 혹여 여가 황좌에 오르거든 여와 자네 누이를 혼인시켜 여를 지켜다오. 옳은 길만 걷게 하고 그른 선택을 계책하고(잘못을 꾸짖어 각성하게 함), 무엇보다 죽지 않게 해다오. 돌보지 않음으로 돌보았다 전하라. 그리고 이런 당부를 하는 그대의 주군을 용서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모두를 독살하고 아이를 황제로 세웠다는 건가? 박중헌 그 자가? 대체 왜..

용포(임금의 옷)를 줄일 새도 없이 아이는 황좌(황제의 자리)에 올랐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어 황제가 될 수 없다 하니

(천수를 누리소서! 만수를 누리소서!)

내 손으로 황제를 만들고 키워 이 세상을 내 황제의 발 아래, 그 황제를 내 발 아래, 그리하여 천하를 내 발 아래 둘 것이다. 천수를 누리소서.

TEXT ON THE SCREEN

10년 후

선황제 폐하의 고명(황제의 유언)을 받들어 국혼(결혼) 날짜가 정해졌사옵니다, 폐하.

상장군 김신의 누이라지?

김신의 인품과 그 집안의 청렴함은 어느 문벌과 견주어도 결코 빠짐이 없사옵니다.

무신 나부랭이(따위)의 누이와의 국혼이라.. 선황제께서 마지막 숨은 좀 아끼셨으면 좋았을 것을..

선황제께선 김신은 충직한 부하이자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 한 든든한 전우이며 믿을 수 있는 신우(믿을만하고 다정한 친구)라 하셨습니다.

선황제의 유언은 왕권을 보다 탄탄하게 하려던 박중헌의 계획에 변수가 됐지.

아침나절 내내 안 보이셔서 이대로 오라버니 얼굴도 못 보고 시집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할 것을. 못난 얼굴 뭐 이뻐서 보러 왔는지 모르겠다.

하아, 오라버니께서 이리 귀히 여기시니 입궁(궁으로 들어가는)하는 길이 아주 꽃길입니다. 헌데 오라버니, 폐하께선 어찌 생기셨습니까?

너는 어찌 성품이 아니라 외견부터 궁금해하는지.. 걱정마라, 성안(왕의 얼굴)이 아주 훤하시다.

참말이십니까? 전 어떻습니까? 저 오늘 예쁩니까?

못생겼다.

그럼, 폐하께도 안 예쁘겠지요? 그땐 집으로 돌아와야겠죠?

폐하께선 이미 널 보셨다.

저를요? 혹, 그 얼굴에서 빛이 나던.. 아하, 보러 오셨었구나. 폐하께선 저 뭐라셔요?

못생겼다 하시더라.

칫, 못생긴 누이 자주 보러 오셔야 합니다.

전장을 떠도는 오라비다. 무소식이 희소식(아무 소식 없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 여겨라.

누가 모릅니까.. 제 걱정은 마셔요. 행복해질게요, 오라버니.

폐하 드십니다.

어! 어!

무거운데..

아! 무정하신 어떤 분이 심중(마음속)에 계시어.

어딜 그리 급히..

폐하를 뵈러..

내가 갈 것인데.

서로 오면 더 좋을 듯 하여..

미천한 것을 쥔 손아귀에는 힘을 적당히 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소중해 꼭 쥐고 나면 그 미천하고 소중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손에 의해. 미령한 나이, 미천한 외가, 외가보다 더 미천한 처가. 삼작일(3일 전) 몇몇 대신들과 문하시중 신철주의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라 하옵니다.

틀린 말이 없지 않은가.

틀린 말이 없을수록 틀렸다 하시는 겁니다. 황실을 욕보인 신철주의 목을 쳐 틀렸다 꾸짖으시어 강건함을 보이시옵소서.

더는 어심을 흔들지 마세요. 더는 폐하의 눈을 가리지 마세요. 문하시중의 죽음은 처사가 옳지 않았습니다.

모두 소신의 처사가 옳다 하는데 황후만이 틀렸다 하십니다.

그대가 정녕.

소신이 눈을 가린 것인지, 폐하가 눈을 감은 것인지.

네 이놈!

네 이년! 낳기는 선황이 낳았으나 내가 키워냈으니 내가 여의 아버지가 아닐 것이 없다. 여를 황좌에 앉힌 것도, 여의 손에 천하를 쥐여준 것도 나다. 내 말이 틀리느냐? 허나 한낱 무신 나부랭이의 누이 주제에 훈계는 집어치워라. 니가 훈계할 자는 내가 아니라 니 오래비(오라비)다. 무덤이 돼라 보낸 변방에서 니 오래비는 거듭 승전보를 전하니 그 의중이 흉악하지 않은가. 한 나라에 왕이 둘이라 한다. 한 하늘에 해가 둘이라 한다. 이것이 역모가 아니면 무엇이 역모란 말이냐.

분노와 염려를 담아 검을 내린다. 될 수 있는 한 멀리 가고, 할 수 있는 한 돌아오지 말라.

폐하, 그 말씀은, 폐하, 어찌 그런.. 폐하의 고려이옵니다. 변방을 수비하라 명하시어 변방을 지켰고 적을 멸하라 명하시어 적을 멸하였고 누이가 여기 있고 백성이 여기에 있는데..

황제의 근심을 이젠 그대가 하는구나. 장렬히 죽었다 기별하라. 애통하다 기별할 것이니. 어명이다.

부디 문신에만 편중치 마시고, 무신이라 천대치 마시고, 부디 변방을 도는 상장군 김신을 불러들여 폐하 곁을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니 박중헌을 멀리 하시고

결국 그리 되더냐. 네 보잘것없음이 결국 욕심이 되더냐, 보잘것없는 네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더냐, 네 오라비가!

폐하.

왕이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어찌 한낱 백성이 왕을 지킨단 말이냐, 네가 지금 무엇을 청하는지 알고나 청하는 것이냐, 네 오라비라는 자는 승산(이길 가능성) 없는 전장에서 번번이 살아 돌아와 저잣거리(장터)의 신이 되어간다. 내 그리 돌아오지 말라 일렀거늘 번번이 개선(싸움에서 이김)을 하여 내 무능(능력 없음)을 비웃는다. 그런 네 오라비가 든 그 검으로 날 지킬지, 날 벨지 그걸 어찌 아느냐!

폐하.

그 누구도 내 백성의 신이 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반역인 것이다.

폐하..

한낱 무신 따위가 득세하니 문신의 세가 기울어 황실의 권위 또한 풍전등화(바람 앞 등불)이옵니다. 상장군 김신의 목을 쳐 틀렸다 꾸짖으시고 강건함을 보이시옵소서.

박중헌의 입에서 결국 김신의 이름이 나오고 말았지.

(백성 위의 왕)

그게 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무신의 누이였고 기품 있는 황후였어. 황제에게 가는 길은 너무 멀었고, 나는 결국 닿지 못했어. 닿지 못할 걸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나는 나아가는 것 밖에 할 게 없었어. 그 자리는 내 마지막 전장이었고 난 거기서 죽어야 했었으니까.

대체 왜..

어명을 어기고 돌아왔고 어린 왕의 질투와 두려움을 간과(관심 없이 대충 보아 넘김)했고 여를 지켜달란 선황제의 당부가 잊히지 않았고 간우들의 죄 없는 목숨을 살려야 했고 무엇보다 내 누이가 죽음으로 그 멍청이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전생의 기억도 없는 자 앞에서 너무 많이 떠들었군. 음식도 다 식었고.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 혹시 이런 반지 본 적 있어?

나 주려고 뺏어 온 거 아니지? 나 너랑 그런 사이 되기 싫어.

집중 좀 해! 잘 봐, 유심히. 본 적 없어?

너 혹시 진짜 내 여동생이다 싶어? 내 과거사도 그래서 물은 거지? 반지 껴 봐! 어떻게 되나 보자.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선아.. 그래서 지금 너 사랑 받고 있는 것이냐?

에헤이! 에헤이!

오붓한 시간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안 오붓해!

저 잠깐 어디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 같이 가. 너 이제 나랑 세트여야 돼.

그래, 둘이 세트로 얼른 나가.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우리 선이도 혼자 있는 걸 좋아했지.

나가, 나가라고!

★

꽃 사서 자기 보러 꼭 오라고, 정현이.. 자기 파주에 있다고..

캐나다 보다 가깝고 좋네.

아저씨 꽃이랑 엄청 잘 어울려요, 아무 꽃이나 다. 아저씨 엄청 제 스타일이에요, 아무 때나 다. 아저씬 성격도 엄청 좋아요, 아무렴요 다.

내가 뭐 잘못했니?

아니요.

그럼 너 뭐 잘못했니?

아니요.

그럼 뭘까, 이 뜬금 없는 고백은?

위로? 응원? 있어요, 그런 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엄청 네 스타일인데, 내가?

이상하고, 아름답죠.

★

여깄다, 고정현. 나 왔어. 엄마? 엄마 맞는 것 같은데? 엄마.. 맞는데? 아저씨! 문! 문! 오픈! 도서관! 빨리요!

★

아, 조심해. 넘어지겠다.

우리 엄마 친구였어?..요? 우리 엄마 알아요? 지연희 씨 알아요?

내가 왜 네 옆에 있었겠냐? 연희 딸내미(딸)니까 있었지. 우리 땐 진짜 다리미로 다려서 코팅했어.

허어..

연희가 많이 도와줬다, 내 거. 고등학교 때 약속 했거든, 서로 애기 낳으면 예쁜 옷 사주자고. 옷은 못 해줬지만 연희 돈은 내가 지켰다. 열어 봐. 비번은 486.

이 통장들 설마..

어, 맞아. 니네 이모가 맨날 없어진다고 했던 그 통장. 그거 연희 보험금이잖아. 맨 위에게 제일 최근 거니까 찾아다 대학 등록금에 보태. 합격 축하한다.

이것 때문에 못 가고 떠돈 거예요? 나 때문에?

떠돌던 차에, 너 크는 거 보는 재미에 좀 늦긴 했어. 난 이제 가서 연희랑 수다나 떨어야겠다.

간다구요? 지금요?

가서 네 엄마한테 빠짐없이 다 전해줄게. 네 딸, 참 착하다고, 공부도 잘 한다고, 대학도 좋은 데 갔다고. 자 그럼 안녕.

벌써요?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울 엄마랑 거기서 두 분 꼭 친구 하시구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가 고정현.

★

엄마! 엄마한테는 진짜 좋은 친구가 있었네요. 아니, 사실 내 친구였어요. 난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았어요. 떡도, 잔치도, 목도리도, 정현이도.. 다요. 아저씨도요. 고마워요, 문 열어줘서.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다. 비웃는 거야?

아, 비! 요즘엔 비가 안 오네요?

자제하는 중이야. 나 NASA에서 잡아갈까 봐.

아하하, NASA 아하하.

★

오랜만이야.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여전히 반말이시구요.

유재신씨!

미안하네.

에헤이.

알다시피 보다 복잡한 사람이라.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네.

보험금이 있어. 한 아이의 엄마가 죽기 전에 남겨 놓은. 아이는 내년 9월이 돼야 스무살이 돼. 따라서 현재 이 돈은 법적 후견인인 이모의 동의 없인 인출이 어렵지.

음.. 보험금이 제 주인에게 가야겠군요, 정당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아, 한 가지 더.

네.

제대로 잘 커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

언니는 죽었지, 애는 어리지, 보험금은 나왔지, 근데 빚이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가 없대지. 그러니 어떡해. 다정도 병이지, 후견인 되려고 내가 그 빚을 다 갚았네, 내가. 그래서 보험금을 딱 받았지, 근데 내 통장으로 못 넣잖아.

사채를 써서 은행 빚을 갚으셨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은탁이 그 계집애 통장에 넣었는데 이 망할 놈의 통장이 막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그 통장이 얼마나 반갑겠어, 내가. 응?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나 모르겠네?

TEXT ON THE SCREEN

녹음 파일 저장

음성 001

취소 저장

법은 알아 들을 겁니다. 보험금을 편취(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음)하려 하였다 인정하셨고..

당, 당신 뭐야, 뭔데 개수작이야, 뭔 취? 내가 우리 은탁이 불면 꺼질까 쥐면, 응? 쥐면 쫘질까 내가 금이야 옥이야 키웠어,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구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일. 깔끔하게 지은탁 양에게 전액 반환하고 출소(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석방되어 나옴)하는 간단한 방법. 이. 지저분하게 양육비를 주장하며 출소(소송을 제기함)하는 복잡한 방법. 일, 이 중에 찍으세요.

TEXT ON THE SCREEN

출소 소송을 제기함

당신,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어두운 쪽으로 지인들이 쫙 있거든?

흠, 사람은 아줌마가 잘못 봤어. 어두운 쪽은 내가 더 잘 알거든?

★

나으리 일은?

잘 처리했습니다. 덕화 군도 지시하신 대로 조치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매장 신입사원부터 차분히 배우라구요.

그래.

★

유덕화씨?

예, 유덕홥니다. 매장이 깔끔하고 좋네요. 일 보세요.

제품 설명섭니다. 내일까지 다 외우시구요.

오, 올라가 올라가! 오, 내려가 내려가! 오 꺾여! 오, 아직 서 있어.

유덕화씨!

저, 장일옥 매니저님? 매니저님이 사실을 알면 되게 놀랄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미 높은데 바닥부터 시작하는 그런 멋진 놀랄 사람.

회장님 손자인 거 압니다. FM대로 하라는 회장님의 지시가 있으셨거든요.

그니까요, 제가 이걸 하루 만에 다 외우면 매니저님 되게 놀라시겠죠.

★

아, 예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드라이 맡긴 모자 찾으러.

아, 그 모자! 와! 그 모자 원단이 진짜 좋더라구요 그거. 아 그거, 이태리 제인가?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Made in Heaven)

아, 어쩐지.. 거기가 원단이 좋아요. 아 잠깐만요. 어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춥지? 어후, 가만있어 봐.

TEXT ON THE SCREEN

선희아니곳ㅅㅓ니

여보세요?

조사 아직이에요?

게을리 하진 않았는데, 예. 아직.

복잡한 조사인가 보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써니 씨 손을 한 번 더 잡아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친다. 그럼 오늘 잡으면 안 돼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오늘이요?

★

나 외출.

앞으로 연락 하지 마세요.

오늘이냐?

뭐가.

그 옷 안 입으면 안돼?

왜, 이상해?

아니다, 내 조언이 너의 오늘의 변수가 될까 싶었는데. 신발이나 편한 거 신고 가, 돌아오는 길이 멀 테니까. 옷은 이상해.

빨래 탈수 다 되면 널기나 해. 하여튼 집안일 드럽게 안 도와줘. 씨.

★

어흐, 복받은 년. 누군 집에서 혼자 닭다리나 뜯고 있는데 데이트할 남자도 있고. 아, 12월 31일의 데이트라니. 어으, 대견하다 친구야!

오늘 데이트 컨셉은 달달하고 따뜻하게. 응, 예뻐?

드럽게 이쁘지!

데이트 중에 한 살 더 먹는 거 티 나면 안되니까.

★

늦어서 미안해요. 사람이 많으면 걷기가 힘들어서요.

그래도 한 살 더 먹기 전에 왔네요. 보신각 쪽으로 걸을까요?

저, 그전에, 손 좀 잡겠습니다.

응? 이렇게 바로요? 이렇게 대뜸?

기다리기엔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으음, 사람 심보 참 이상하죠? 괜히 튕기고 싶네. 손잡고 싶어요? 내 손?

네!

나두요. 나두 손도 잡고 싶고 포옹도 하고 싶어요, 김우빈씨랑. 근데 적어도 내가 누구 손을 잡는지, 누구 품에 안기는지는 알고 안겨야죠. 아직 제 질문에 대답 안 해줬잖아요. 정체가 뭐냐구요, 김우빈씨. 내 본명 어떻게 알았는지도 아직 대답 안 했고. 잘생겨서 넘어가 주는 건 올해까지만인데, 두 시간 후면 내년이고,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만 할까요, 우리? 길 안쪽으로 몰아넣는 것도, 제도 샤프로 수학문제 푸는 것도 귀엽고, 다 좋은데 더는 안되겠네요. 그냥 내가 차일게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하지 말구요. 해피 뉴 이어.

★

흐음..

흥..

아저씨, 아저씨!

들어와. 무슨 일이야, 자고 있었는데.

그러고요?

어, 나 원래 이러고 자. 왜?

아, 알았구요, 아저씨 잘 들어봐요.

뭘.

아저씨! 열두 시 땡! 1월 1일 새해! 저 방금 어른 됐어요! 꺄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옷은 왜 챙겨 입었어?

선약 있어서요, 나가려고요. 저 이제 어른이니까!

너, 와하하! 이 오밤중에 무슨 선약이야! 너 대체 정신을..

아저씨랑 선약인데요?

그래서 옷 딱 입고 아까부터 내가, 어?

바보, 꼭 말로 해야 하나?

어! 앞으론 꼭 좀 하자, 사람 피 말리지 말고. 나가자고? 뭐 하고 싶은데?

해 줄 거예요?

뭐가 됐든, 니가 하라고 하면 그것까지 하고..

아저씨! 술이요! 술! 술! 술! 술 사주세요! 포장마차 소주! 닭똥집! 낭만 가득! 왜요? 그럼 가보십시다! 낭만 속으로!

★

자 어른끼리 건배!

너 괜찮겠..

어으.. 낭만적이야, 아으 써.. 소주가 원래 이래요?

술은 원래 다 써. 그게 달아지면 진짜 어른이 되는 거고.

그렇담 한 잔 더! 따르시오! 부으시오! 짠!

짠!

오 달.. 크.. 써.. 써!

그림 좋은데?

이 진부한 전개는 뭐지? 아저씨가 섭외했어요?

그건 아닌데 구면이긴 하네.

내가 너 이 동네에 살 줄 알았어. 내가 너 엄청 찾아 다녔거든? 저 새끼야, 나 이렇게 만든 새기. 내 손 이렇게 아작 내놓고 팔자 좋게 여자랑 놀고 있어? 너 오늘 뒤졌어.

오늘? 진짜? 나한테 보이는 거 다 말해 봐.

뭐래는 거야, 씨..

너 재미 있으라고. 안주 먹고 있어, 술은 나랑 마시고. 금방 올 테니까. 우리의 전장은 밖이다. 나와.

야, 뭐야? 어디 갔어!

내가 쟤 이상하다고 했잖아, 나, 나와.

어휴, 남친 저러고 나가도 괜찮아? 저 놈들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악질인데!

아휴, 괜찮아요. 어디 가서 맞고 다닐 양반 아니에요. 이모, 소주 한 병만 더!

★

간만에 클래식하게 상대해 볼까? 전직 무신이었거든, 내가.

난 현직이 무직이다,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대장부의 삶이 그래서 쓰나. 자네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오늘 안 봐주는 이유야. 아플 거야. 참든지.

뭐래는 거야, 씨. 야! 조져버려!

오, 카으, 으, 써.

★

자, 처음부터 다시 낭만 시작해 보십시다! 카아!

아직도 낭만적이야?

아까보다 더요. 흐릿한 불빛, 소박한 안주, 쓴 소주, 비정한 정서, 도처에 낭만이 가득. 딱 하나만 더 있으면 완벽한데.

뭐.

첫 키스요.

뭐?

그때 그건 뽀뽀니까 움직이기 없기.

하아..

치사해.

너, 너..

내가 도깨비 신부인 거 잊었어요? 안 걸린다고, 난.

에휴.

음음음음, 절대 못 피한다는 뜻이죠.

안 피한 건데? 한 번 피하는 것도 어려웠어.

완벽하다.

★

그녀가 차였는가, 내가 차였는가.. 후우.

★

뭐 하는 거야, 기타 누락자?

그러게 너 뭐해?

굿모닝이요! 새해이기도 하고, 아저씨들한테 고마운 것도 너무 많고 해서 떡국 끓이던 중이었어요. 메밀묵도 무쳤는데.

새해부터 기특하군.

스키장 알바비 들어와서 소고기도 좋은 걸로 사놨어요.

아, 내 떡국엔 소고기 빼주고.

네. 아, 아저씨들이 막 밤안개 낀 날 모델처럼 쿵쿵 걸어오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서 새해라니.. 그 때 아저씨들 진짜 멋졌는데, 무서운 와중에도 완전 짱 멋졌어요. 하아, 좀 만 기다리세요. 아! 대파, 대파를 안 샀네!

떡국에 대파 없으면 퍽 난감하지.

대파 중요하지. 가볼까?

어디 한 번 그래 볼까?

★

야, 이 미친놈들아! 새해부터 죽고 싶나? 인도로 안 다녀!

저 자가 인도로 다니라고 지금 새해 덕담을 한 것 같은데.

덕담이 고마우니 해코지는 않겠네, 새해 복 많이 받게!

우린 멋지니까, 해피 뉴 이어!

하하하!

의로운 친구일세. 하하하.

요즘 세상에도 저런 친구들이. 하하하!

아름답구나. 하하하!

★

맛있게 드세요.

맛이 있어야 맛있게 먹을 텐데.

저 요리 잘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저씨들!

너도 복 많이 받구!

나 써니 씨랑 헤어졌어.

뭐라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요?

내가 차일게요.

그건 내가 차였으니 니가 먼저 연락해라 라는 뜻이죠.

내 정체를 묻더군.

와 그건 쎄다. 근데 저승사자는 좀 부정적이니까 천사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같은 장르인데.

힘내, 파이팅! 다 그러면서 크는 거다. 300살이면 한창 아프고 그럴 때지. 괜찮아. 왜?

다시 사실 하나, 답을 얻기 위해선 답과 가까운 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뭔 소리야? 어! 야! 무슨 짓이야, 이게! 놓아라! 야!

역시 너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 그저 따뜻할 뿐.

아 깍지! 깍지! 아파, 아파, 각지! 내 손 어떡할 거야!

떡국 잘 먹었어.

이 손! 이손 어떡할 거야. 이 손!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잘라 버려야 돼.

호, 소독! 이럼 됐죠?

됐.. 됐네, 다 됐네., 소독이. 이제 괜찮아. 걱정 마.

그니까 떡국 값 해요. 알겠죠?

★

왜 여기로 와, 슈퍼 가자면서.

앗! 군고구마잖아! 나 진짜 군고구마 처음 먹어 봐! 진짜 진짜 진짜 처음이야!

군고구마를 처음 먹는 게 아니라 군고구마 처음 먹는 연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역시 일일 생활권, 지구촌 한마당 시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죠?

뭐 해! 이런 우연 앞에서.

두 분 인사 안 하세요?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 안 하기로 해서.

인사 안 하기로 했어?

아하하..

두 사람 오늘 전체적으로 노른자와 흰자 같네. 계란후라이. 아, 미안.. 아하! 콩나물이네! 줄기, 대가리! 콩나물 좋아하잖아.

★

아저씨 때문에 다 망했어요, 망했어.

아니 둘이 옷이..

죄송해요, 작전에 이 아저씨를 참여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됐어. 그래도 써니 씨 봤잖아.

그리고 오천 원도 없으면서 군고구마는 왜 먹겠데? 아니, 멀쩡하게 생긴 두 분이 합쳐서 오천 원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이거 사장님이 돈 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천 원은 생각지 못한 변수였다. 내 다음부터는 꼭 미리 현금을..

됐구요, 오늘 아무 소득도 없이 작전에 실패했잖아요, 아저씨 때문에?

음음, 작전엔 실패했으나 우리에겐 소득이 있다.

아 나 이 양반이.

나 출근. 오늘 내 컨셉은 천사였어.

오, 다 너 때문이네.

대박.

★

대표님 여기요. 저 되게 자연스럽죠? 불법체류자 안 같죠? 외국 처음 온 애 안 같죠?

(예쁘다)

결국 그걸 샀다 이거지? 대푠가 뭐시긴가 만나려고? 하! 하아.. 그거 내가 사주는 거였구나.

★

차였다고 한 것은 그녀인데 왜 자꾸 제가 차인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별에 의해 다치는 감정이 회복되는 기간이 다 달라요. 빨리 회복을 시키자에 집중하기 보다는 나는 어떤 것에 회복되는가에 집중해 보세요.

아, 집중. 상담 감사합니다, 선생님. 차 드세요. 이승의 기억을 잊게 해 줍니다.

하아, 공부한 거 아까워 죽겠네. 뭐 하러 박사까지 딴다고 청춘 다 버리고, 당신이 제 마지막 진료였어요.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고 저 왔습니다, 나으리. 어디 다녀오시는지요.

잠깐 뭐 좀 살 게 있어서.

잠도 안 오고 적적해서, 바둑이나 한 판 둘까 하고 왔습니다요. 이 촛대랑 식기들은 언제 날 잡아 한 번 닦아야겠습니다요.

날 좋은 날 할 터이니 걱정 말게. 그럼 오랜만에 바둑이나 한 판 둘까?

자네 어릴 때 내가 바둑을 가르쳐 줬는데 요새는 번번이 진단 말이지.

저야 죽기 살기로 두니까요. 허허허.

난 뭐 안 그런 줄 알고..

곤마입니다 나으리! 절대 안 물러 드릴 겁니다. 허허! 어디.. 허허허

홀로 불멸을 살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지켜 보아라. 그 어떤 죽음도 잊히지 않으리라.

★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봅니다, 회장님..

예 그리 될 것 같네요. 허허.

★

낮술은 늘 좋아.

낮술 추워, 이제.

무슨 일 있어?

명부가 올 거야.

지은탁 명부?

아니, 유회장.

유회장한테는 얘길 했어?

인간이 자신의 생사를 알아서 좋을 게 있나.

그럼 덕화에게는? 그래도 알면 낫잖아. 후회 없도록, 알려 주는 게 낫지 않겠어?

죽음 앞에선 어떤 것도 다 후회야. 유회장이 네 안부 묻더라. 놀러 와 계신 친구분 잘 지내시냐고.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겠지, 뭐.

뭐, 너 차인 거?

허어..

연락은 해봤어?

못 했어. 이번에 하면 진짜 내가 뭔지 커밍아웃 해야 돼.

너 생긴 거 누가 봐도 저승사자인데 무슨, 그 여자 좀 둔한 거 아니냐?

그게 다야?

뭐.

써니 씨한테 느껴지는 거.

더 있지.

있어?

그 여인은 과분한 이름을 가졌다고 느꼈지. 내 누이와 같은 이름이라니, 헤어졌으니 망정이지 볼 때마다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기가 이를 데 없었어.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논리가 하나도 없다니까.

써니 씨 욕을 그만해야 할 거 같아.

오 편드는데?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써니 씨 전생 본 거 말이야.

비밀이라며.

써니 씨가 네 여동생의 환생인 것 같다.

써니 씨야? 네가 아니고?

써니 씨의 전생 속 얼굴이 네가 가진 그 족자 속 여인의 얼굴과 같았어.

확실해? 뭘 봤는데?

내가 본 그 여인은 궁 한가운데 서 있어. 흰 옷을 입었고 지체가 높아 보여. 가슴에 활을 맞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

그건 내가 얘기 해줬잖아, 흰 옷 까진 아니었더라도 활 얘기..도 내가 안 한 거 같긴 한데. 다른 건? 다른 거 더 본 거 없어?

가마를 타고 가다 누군가를 보며 웃었어, 작은 창문으로 웃으며 물어, 저 오늘

저 오늘 예쁩니까?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어. 못생..

못생겼다.

네 여동생이 맞아?

맞아.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